**리벤지 포르노: 6개월 만에 경찰에는 175개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월에 법이 도입된 이후로 12살 정도로 어린 아동의 사건도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대 가운데 1/3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Josh Halliday 2015. 10. 11**

**2015. 10. 12 (최종 수정)**

지난 6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사건은 200건에 육박한다. 지금까지 집계된 공식적인 수치에서 가장 어린 피해자는 12살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밝혀진 수치를 보면 최초로 리벤지 포르노 사건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있는데, 복수심에 불탄 헤어진 연인이 온라인에 은밀한 이미지를 공유한 것을 신고한 사건이 새로운 법이(리벤지 포르노 법) 통과된 이후에 쇄도한 것이다.

4월 이후, 175명의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진이 공유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통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18개의 경찰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신고된 사건들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경찰대의 1/3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가장 큰 경찰대인 런던 경찰청과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4월,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 공공기소국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기소 지침을 발표한 이후 7월에 14개 경찰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9건의 리벤지 포르노 혐의가 신고되었다고 한다.

<여성 폭력 종식>(End 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캠페인 그룹의 국장인 사라 그린에 따르면, 사건이 증가하는 까닭은 예상보다 범죄가 더 많이 퍼져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다.

“경찰에 ’리벤지 포르노’ 사건 신고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를 주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는 12세에서 58세까지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여성과 헤어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의 동의 없이 노골적인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고 한다.

험버사이드 경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한 남학생이 또래의 여학생(전 애인)과 섹스하는 노골적인 영상을 스냅챗과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여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이 친구들은 해당 영상을 돌려보고 있다. 양 측 부모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의 어머니는 이에 대해 매우 분노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모에게 이야기했으며 오늘 그에 대한 가족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섯 개의 경찰대가 밝힌 수치에 따르면, 사건의 1/5는 피해자가 더 이상의 경찰 조치를 원하지 않아서 중단된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재판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체셔, 그레이터 맨체스터, 서레이, 험버사이드, 랭커셔 경찰에 신고된 66개의 사건 가운데 열 네 개는 피해자가 기소를 망설이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새로운 법이 발효된 이후 열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은 12개월 사회 봉사 명령 혹은 징역 12주이다.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에 벌금을 내는 것이다.

지난 주 카필리에 사는 트랜스젠더 남성 제스 호손(23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본인의 성전환 수술 계획을 비웃은 후 그녀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징역 16주,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총장 앨리슨 손더스는 “리벤지 포르노그라피는 피해자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범죄이며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전 파트너의 복수심에 불탄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두 사람 사이 신뢰를 어기는 행위이며 공공연하게 상대를 망신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다”고 밝혔다.

손더스는 새로운 법이 기소 숫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말하기 이르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된 이와 같은 사건이 더 있다고 보며 이는 새로운 법이 확실히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그라피 사건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신고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진행되는 것은 좋은 성과이다.”

사라 그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건이 경찰에서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에 자신감을 얻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 가운데 12살 아동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학대 행위에 대한 전문가들은 반드시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섹스와 관계에 대한 교육이 도입되어 젊은이들이 합의와 존중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학대 행위의 나쁜 표본을 공유하며 그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자료를 확보한 Thinktank Parliament Street의 기술부장 스티븐 조지 힐리는 “리벤지 포르노는 종종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무시무시한 범죄이다. 경찰과 정부는 반드시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가해자가 더 오랜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확실히 처리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보다 힘껏 지원해야 한다.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달리, 리벤지 포르노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현재 법에 의해 평생 익명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재판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더 큰 수치스러움을 초래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이들은 하원에게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5/oct/11/revenge-porn-175-cases-reported-to-police-in-six-months